“승가 ‘다비’·재가 ‘49재’, 보험으로 정착 기여할 터”

佛子 CEO Interview

박채원 (주)선우HK 대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박채원 선우HK 대표가 조계사 극락전 앞에서 합장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박 대표는 현대사회에 맞는 불교 보험상품을 개발 · 보급하여 전법포교에 기여하고 있다.

“실질적 복지와 전통 계승의 조화, 포교하는 경영인으로서 정진하겠습니다”

불교에서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또 다른 삶으로 건너가는 과정이다. 49재와 다비는 고인을 위한 의식이면서, 동시에 남은 이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수행의 시간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장례와 49재는 남겨진 가족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보험’이라는 현대적 방편으로 풀어낸 인물이 있다.

흥국생명과 협력해 ‘49재 제례종신보험’과 ‘해탈다비보험’을 보급하고 있는 ㈜선우HK 박채원 대표다. 그녀를 만나 그가 그리는 불교 장례문화의 미래를 들었다.

제사는 갈등 아닌 효도의 기쁨
원력(願力)으로 현대적 방편의 꽃 피우다

제례보험은 현대 사회에서 ‘제사’가 가족 화합의 장이 아닌 갈등의 불씨가 되어가는 현실에 주목했다. 명절과 기일마다 반복되는 준비의 고단함, 비용 분담을 둘러싼 형제간의 갈등으로 고민이 시간되는 순간, 효도라는 본연의 의미는 빛을 잃는다.

박 대표는 여기에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하면 제사가 부담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 부담없이 가족이 모이는 장이되면 그때야 말로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닐까?

그녀가 제안한 ‘49재 제례종신보험’은 생전에 준비함으로써 남은 가족의 짐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사찰과 연계해 전문적인 의례를 지원받도록 하여, 자녀들이 절차와 비용 걱정 대신 고인을 향한 마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험은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비용 문제로 얼굴 붉히지 않도록 미리 길을 닦아두는 것이지요.”

그녀는 이를 ‘가족 화합을 돕는 공덕’이라 표현했다.

한 사람의 준비가 남은 가족의 갈등을 줄이고, 사찰의 전통 의례를 지탱하며, 수행 문화의 맥을 잇는 데 기여한다면 그것 또한 살아 있는 공덕이라는 믿음이다.

봉은사 염불 소리서 찾은 평온! ‘진짜 불자’로

박채원 대표에게 불교는 선택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어머니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오랜 세월 신행에 힘써왔고, 어느날 큰 병을 얻은 뒤 오대산 월정사에서 5년간 머물며 몸과 마음을 추슬렀다. 그 시간속에서 어머니는 서원을 세웠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49재보험’과 ‘다비보험’을 구상했다. 딸인 박 대표에게 이 원력을 함께하자고 권유했다. 하지만 현장의 현실은 냉혹했다.

“평생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던 제게 보험 영업은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스님들을 뵙는 것조차 낯설어 당황하기 일쑤였고, 본사의 실적 압박은 생전 처음 겪는 고통이었죠.”



부산 대원각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서 스님들과 신도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모습.



서울 봉은사에 마련된 홍보부스에서 직접 홍보활동을 하는 모습.



장성 백양사 포살법회서 ‘다비보험’ 홍보활동과 접수하는 스님들의 모습.

스트레스로 밤잠을 설치며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자, 원망의 화살은 어머니를 향했다. 한 집에서도 며칠씩 말을 섞지 않을 만큼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절망 섞인 눈물을 쏟아내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녀는 그 시기를 “마음이 얼어붙은 겨울”이라고 회상한다.

어둠 같던 터널을 지나게 해준 것은 역설적으로 다시 ‘불교’였다. 지난해 가을, 서울 봉은사 법왕루 아래 홍보 부스를 차리고 3개월간 매일 신도들을 만났던 경험이 전환점이 되었다.

“가을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스님들의 염불 소리를 매일 귀에 담았습니다. 마음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고 밖으로 향하던 시선이 안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이 단순한 영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을 아름답게 갈무리해 주는 ‘공덕의 길’임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 “생전 본인의 49재를 미리 다니던 사찰에 보험을 통해 예탁해 놓는 것은 부모 · 자식간 종교가 다른 가정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박 대표는 이 시기 〈금강경〉의 가르침을 깊이 새겼다.

눈에 보이는 실적, 타인의 평가, 스스로 만든 기대 역시 하나의 ‘상(相)’일 뿐이라는 깨달음이었다. 그것이 사라지면 자신도 무너질 것처럼 붙들고 있었지만, 실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음을 자각했다.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는 말을 글로는 많이 읽었지만,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일이더군요.”

이후 통도사, 월정사, 범어사, 백양사 등 유명사찰을 돌며 전국의 선지식들을 친견하고 얻은 가르침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우리 같은 이른바 날나리 불자가 종정스님이나 총무원장스님 같은 큰스님들을 뵙게 된 것만으로도 이 사업의 보람”이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공감하는 ‘진짜 불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조계종 및 전국선원수좌회등과 업무협약

진심은 결국 통했다. 지난해 6월 대한불교조계종과의 업무협약(MOU)에 이어 12월에는 전국선원수좌회와도 손을 잡았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과 수행자 그룹으로부터 상품의 공익성과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 받는다.

“수행에만 정진하시는 스님들의 마지막 길을 예우하고, 전통 다비 문화를 올바르게 전승하는 데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저를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박 대표는 화려한 수식어 대신 ‘정직’과 ‘인내’를 약속하며 인터뷰를 끝맺었다. 제사와 장례가 가족의 숙제가 아닌 ‘기쁜 추모’가 되고, 사찰 경제에도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다짐이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처음 마음먹었던 초심 그대로, 가입자와 사찰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Heungkuk 흥국생명

제례의식의 수행 주체인 **사찰을 수익자(보험금 수령)로 지정**할 수 있는

(무)흥국생명 **49재 하늘소풍 제례 종신보험**

누구나 좋은보험!

“죽고 나면 내 제사는 누가 지내주나?”
더 이상 자녀와 후손에게 부담은 그만!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인 제사 고민 끝!

이제 사찰에서 여법하게 모십니다.

다양한 보장금액으로
나의 재정 상황에 알맞게 든든한 미래 준비

보험료 납입 중 사망하더라도 가입금액 전액 보장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 등의 경우 부지급

선택사항
49재(천도재)와 기제사(1년~5년)를 기본으로 구성
범패, 바라, 위패봉안, 큰스님 영가법문 등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전통 다비식까지 다양한 옵션

보험가입자(피보험자)
웰다잉! 내가 선택하는 사후(死後)

유가족
제사 부담 해소, 고인에 대한 예우

사찰
안정적인 제사 확대

상담문의전화
선우HK 보험대리점 1522-1543
대리점등록번호 제 2025038022호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본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며 저축보험, 연금보험이 아닙니다. *본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청약사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우HK(보험대리점)등록번호 제 2025038022호) 및 소속손해보험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GA)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대리·중개를 알려드립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으며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 및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정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내 이상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을 청약철회기간으